

시간 : 80분

점수 : 100점

#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입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 질환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고,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 예방 대책의 순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가 아파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분들이 경험했군요. 어땠나요? (반응을 확인하고) 다신 가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을 치과에 가게 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 잇몸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볼까요? (㉠자료 제시) 앞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 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잇몸 질환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 질환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 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료 제시) 세균 집단과 음식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쌓이면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생기는데, 이것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치석은 세균이 대규모 집단으로 살고 있는 서식처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료 제시) 치아 뿌리와 잇몸 뼈는 치주 인대라는 섬유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제시)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섬유 조직이 파괴되면서 잇몸 뼈가 세균 번식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사용되고, 잇몸 뼈 자리로 세균이 버린 배설물, 즉 독소가 쌓여 염증의 진행은 더욱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지나치게 피로하면 몸은 세균 감염에 저항하는 힘을 잃게 되어,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흡연이나 전신 질환도 잇몸 염증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치주 인대와 같은 섬유 조직이 약화되어 잇몸 질환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과 질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잇몸 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 청중들의 대답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답한 분들은 제 강연을 아주 잘 들으셨네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평소에 잇몸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요인에 주의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잇몸 질환은 유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 혹시 가족들 중에 잇몸 질환을 겪은 분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연 중간에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강연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반응을 확인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④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 후,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보기>는 강연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떠올린 생각이다. 청중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동안 양치질을 게을리했는데 걱정이네.
- 음식물 찌꺼기라고 하니 왜 좀 더 마음에 와 닿는군. 어떻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할 수 있을까?
- 아버지께서 잇몸 질환이 심하신데 흡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해 드려야겠어.
- 외할머니, 어머니 모두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니 나도 치과에 가서 잇몸 검진을 받아봐야겠네.

- ①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며 들었다.
- ② 강연자가 사용한 표현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하며 들었다.
- ③ 강연자가 제시한 내용을 주변 상황의 사례와 관련지으며 들었다.
- ④ 강연자가 언급한 내용을 듣고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들었다.
- ⑤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점을 떠올리며 들었다.

3. 강연에서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잇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증가율을 보여주기 위해 ㉠에 연도별 진료 인원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 ② 잇몸과 잇몸 뼈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에 잇몸 구조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 ③ 잇몸과 잇몸 뼈의 염증이 치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 치석 생성 과정이 담긴 슬라이드를 제시하였다.
- ④ 치주 인대가 치아 뿌리와 잇몸 뼈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에 치주 인대 부분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 ⑤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에 초기 상태와 후기 상태의 사진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4~7】 (가)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봉사 활동 축제 참가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 ◆ 필수 사항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1. 동아리명을 정한 이유를 쓰시오. .... ㉠
  2. 봉사 활동을 했던 구체적인 단체명을 3개 이내로 쓰고 가장 의미 있는 단체와 활동 내용을 쓰시오. .... ㉡
  3.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생각과 봉사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을 쓰시오. .... ㉢
  4. 향후 구체적인 봉사 활동 일정을 쓰시오. .... ㉣
- ◆ 신청서 접수
  - ○○구청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들이' 기획 담당자..... ㉤

(가)

학생 1 :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구청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축제에 나가 보면 어떨까? 이 축제는 ○○구청에서 봉사의 마음을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여름 방학 기간에 개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 올해는 장소가 넉넉지 않아서 20개 팀만 선발한다고 해. 그러니까 참가 신청서를 잘 작성해 보자.

학생 2 :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니 그때는 독거노인을 주제로 한 것이라서 우리 동아리와는

[A] 성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

학생 1 : 맞아. 내 친구 중에 작년 축제에 참가했던 다른 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의 동아리는 주로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 활동을 했다고 했거든.

학생 3 : 그렇구나. 이번 축제의 주제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이라서 우리 동아리가 그간 활동했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작성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학생 2 :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신청서의 앞부분에 동아리 이름을 정한 이유를 써야 하는데,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학생 1 : 그건 내가 잘 알아. 우리 동아리 이름이 '사랑 나누기, 행복 곱하기'잖아. 이 이름은 5년 전 한 선배가 만든 것인데, 봉사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배가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

학생 3 : 그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봉사 활동을 했던 단체 중에서 3개를 선정해보자.

학생 2 : 우리가 활동했던 봉사 활동 단체는 지적 장애인과 함께 했던 '더불어 우리', 청각 장애인 단체 '아름다운 소리샘', '함께 가는 한 걸음', 그리고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주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단체인 '행복으로 물드는 석양' 등이 있었어.

학생 1 : 아, 그런데 3개만 적으라고 했으니 하나를 빼야겠다.

학생 2 : 그렇다면 청각 장애인 단체가 두 곳이니까 최근에 자주 가지 못했던 '함께 가는 한 걸음'을 빼자. 그리고 그 중 우리 동아리가 가장 의미를 둔 단체는 '행복으로 물드는 석양'으로 하면 어떨까? 그때 한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더니 내 머리를 한참을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

학생 3 : ㉠(손뼉을 치며) 맞아, 나도 생각이 난다. 그런데 나는 '더불어 우리'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이 인상 깊었었어. 지적 장애를 가진 영수가 블록 놀이를 하

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 또 내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나도 참 많이 울었었어.

학생 1 : ㉡두 군데 모두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이번 행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아쉽지만 '행복으로 물드는 석양'을 빼고 '더불어 우리'로 결정하면 어떨까?

학생 2, 학생 3 : 그래, 좋아.

학생 3 : 이제 초고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자.

학생 2 : 먼저 봉사 활동의 의미와 봉사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을 쓰도록 하자.

학생 1 : 이어서 우리의 활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다짐을 드러내면 좋겠어.

[B] 학생 2 : 참, 표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감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자.

학생 3 : 그렇다면 관용적 표현도 활용하자. 또 담당자가 성인이니까 정중한 표현을 쓰자.

학생 1 : 그래, 좋아. 그리고 다 작성한 후에 선생님께도 한번 보여드리자.

학생 2 : 응, 좋아. 참가신청서를 완성하면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할게. 그럼 내일 만나서 작성해 보자.

(나)

봉사 활동 신청서

- 학교, 동아리명 : △△고등학교, 사랑 나누기 행복 곱하기
- 접수처 : ○○구청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들이' 기획 담당자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봉사 활동 축제인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들이'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봉사 활동 동아리 '사랑 나누기, 행복 곱하기'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5년 전에 봉사 활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결성한 봉사 활동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이름인 '사랑 나누기, 행복 곱하기'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배가 된다는 뜻으로 봉사의 마음이 가지는 무한한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C] 저희 동아리는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더불어 우리', 청각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아름다운 소리샘', '함께 가는 한 걸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단체 하나 저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의미를 둔 단체는 '더불어 우리'입니다. 그곳은 지적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활동을 끝낼 때면 저희를 꼭 안아주던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찡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봉사 활동을 나의 작은 힘으로 남들을 돕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 활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봉사 활동이 단순히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로부터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이야말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리 [가]

감사합니다.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행사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여 다른 토의자들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당면한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1'은 토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사례를 동원하여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행사의 주제와 동아리 활동의 연관성을 토대로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 ⑤ '학생 2'는 '필수 사항'을 고려하여 토의에서 첫 번째로 논의할 내용을 지정하고 있다.

5. ㉠~㉣ 중, [C]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군.
- ② ㉠은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는 물음의 형식으로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군.
- ④ ㉡는 봉사 활동 축제의 주체를 고려하여 두 의견 중 한쪽 의견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군.
- ⑤ ㉠와 ㉡는 모두 상대 의견의 한계를 제시하며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군.

7. [B]를 바탕으로 [가]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저희 동아리는 항상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봉사 활동을 시작했던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꾸준하게 봉사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② 봉사 활동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졸업 후에도 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칠학년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③ 장애는 누군가에게도 올 수 있는 나쁜 손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장애는 조금의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편함에 맞서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④ 장애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주마간산으로 꿈꿔오고 정확하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의 ○○번 부스에 '사랑 나누기, 행복 곱하기'의 이름이 꼭 걸리기를 소망합니다.
- ⑤ 저희 동아리 부원 모두는 일회적인 봉사 활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지속되는 봉사 활동을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절차탁마하여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 디지털 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눈 건강 문제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밝히려고 함.
-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함. .... ㉠
  -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
  - 블루라이트에 덜 노출되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들게 됨. .... ㉢
  - 청소년기에는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큼. .... ㉣
  -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글의 초고]

현대인은 TV,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학업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디지털 기기가 사람을 편리하게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되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초등학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기의 영향 연구'에서 아동의 9%가 안구 건조증 상태로 판명됐다. 안구 건조증 상태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현저하게 길었다. 또한 최근 논문을 보면 눈에 이상이 없는 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블루라이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을, 나머지 그룹에는 블루라이트 배출량을 현저히 줄인 영상을 각각 보여주었을 때, 블루라이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을 본 그룹보다 블루라이트 노출량을 줄인 영상을 본 그룹에서 눈의 불편감과 피로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근육과 신경 반응을 과도하게 유도하는데, 이때 눈은 물론 목과 어깨의 근육을 긴장시켜 목,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녁 시간 이후 장시간 블루라이트를 받게 되면 인체가 햇빛을 쬐고 있다고 착각해 생체 리듬이 망가지므로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초고 작성 후 수행한 자기 점검]

- 점검 내용 : 마지막 문단은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글의 흐름에 보다 부합할 수 있겠어.
- 고쳐 쓴 마지막 문단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블루라이트 노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여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밤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녁 시간 이후 장시간 블루라이트를 받게 되면 인체가 햇빛을 쬐고 있다고 착각해 생체 리듬이 망가지므로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8. ㉠~㉣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을 보완하려고 있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블루라이트(청색광)는 380~500nm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광원으로, 자외선 다음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외선이 각막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는데 반해 블루라이트는 시신경이 모여 있는 망막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망막과 망막 내 시각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누적되면 황반변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 황반변성이 일어나면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 악화되면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고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 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활 환경 속의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②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시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일과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 ③ 디지털 기기의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각막과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사용 시간과 사용 방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④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며, 사용자 또한 블루라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 ⑤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망막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10.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기기와 시력의 상관성은 추가하고, 블루라이트와 생체 리듬의 관련성은 삭제
- ②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과 눈 건강의 관련성은 추가하고, 블루라이트의 긍정적인 영향은 추가
- ③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개선 내용을 추가하고,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삭제
- ④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내용을 추가하고,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추가
- ⑤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량 증가는 추가하고,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인 악영향은 삭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를 지칭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누어진다. 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이다. 격 조사에는 주격 조사 '이, 가', 목적격 조사 '을, 를' 등이 있다. 보조사는 앞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보조사에는 각각 '한정, 대조, 역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 는, 도' 등이 있다.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에는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와, 과' 그리고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랑, 하고' 등이 있다.

한편, 중세 국어의 조사는 현대 국어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앞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첫째, 중세 국어의 격 조사는 현대 국어의 조사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는 앞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가) 이, |, ∅(주격 조사 없음.)

(나) 이라, |라, ∅

(가)는 주격 조사이고, (나)는 서술격 조사이다. 서술격 조사는 형태상으로 볼 때에 주격 조사에 '라'가 붙은 것이다. '이'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이고, '이'는 앞말의 끝소리가 'ㅣ' 이외의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은 앞말의 끝소리가 'ㅣ' 모음일 때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앞말의 끝소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선택되었다. 또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기도 했다.

(가) 를, 를, 을, 을

(나) 익, 의

(다) 로, 으로, 으로

(라) 에, 에, 예

(가)는 목적격 조사, (나)는 관형격 조사, (다)는 도구의 부사격 조사, (라)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이다. 여기서 (가)의 '를, 를', (다)의 '로'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가)의 '을, 을', (다)의 '으로, 으로'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였다. 단, 앞말의 끝소리가 'ㄹ'인 경우에는 '로'가 쓰였다.

이와 달리 (가)의 '를, 을', (다)의 '으로'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가)의 '를, 을', (다)의 '으로'는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한편 (나)의 '익', (라)의 '에'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나)의 '의', (라)의 '에'는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라)의 '예'는 체언의 모음이 중성 모음('ㅣ')인 경우에 쓰였다.

둘째, 보조사 역시 격 조사의 사용 방식과 유사하다. 즉,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 '는, 는'은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은, 은'은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쓰였다. 이와 달리 '는, 은'은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고, '는, 은'은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셋째,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우에 '와', 자음인 경우에 '과'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유사하지만 'ㄹ' 받침 아래에서 '와'가 쓰인 점이 다르다.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각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을 도모하던 시기였다.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등장한 집단이 있었는데, 제자백가라고 ㉠명명되던 사인(士人)의 무리였다. 많은 선생[제자(諸子)]과 많은 학파[백가(百家)]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자백가는 이념을 공유한 스승과 제자로 구성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상 학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인은 사(士)라는 종법적 위계를 가진 지배 계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주 시대의 지배 계층은 주나라 왕을 의미하는 왕, 제후들을 의미하는 공, 제후국의 고급 관료들을 의미하는 경대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자 대다수를 형성했던 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대부 아래에서 약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등용을 꿈꾸며 평상시 ‘육예(六藝)’라고 불리는 여섯 가지 전문 기술을 ㉡연마했다. 육예는 예(藝),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하는데, 예는 귀족 계급의 예의범절을, 악은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을, 사는 활 쏘는 기술을, 어는 전거\*를 모는 기술을, 서는 글을 읽고 쓰는 기술을, 그리고 수는 점을 치고 해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육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와 어라는 전쟁 기술과 관련된 분과라고 할 수 있다. 서주 시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까지 전쟁 방식이 주로 전거를 타고 활을 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인들은 비록 경대부보다 열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 제후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력의 주요한 기반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인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공들과 경대부들의 다툼에서 사인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자백가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자직」에 따르면 제자백가의 각 학파는 스승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고, 그들의 일과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청소, 취침, 식사 등의 일상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다양한 지역에서 제자들이 특정 스승을 찾아 모여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춘추 전국 시대가 탁월한 사인을 목 놓아 고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스승에게 통치와 관련된 지혜를 배워서 현사(賢士)가 된다면 누구든지 입신양명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만일 스승이 어느 제후국에 등용된다면,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고급 관료로서 입신양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우리는 왜 제자백가가 춘추 전국 시대에만 유독 번성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사를 요구하던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인들을 효과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국가적 장치가 각 제후국 내부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백가라는 일종의 사학 집단이 발생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자백가는 전통적인 귀족 계급이 아닌 일반 평민들도 훌륭한 스승을 찾아 신분 상승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야인(野人)’이라 부르며 ㉢편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자백가는 야인들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마천의 「사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공자의 휘하에 3,000여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공자를 따라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 언젠가 제후국에 등용될 것이라고 확신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자가 표방한 정치적 이념이 수용되기 어렵게 되자 제자들은 하나둘씩 그의 길을 떠나 버렸다.

한편 다양한 제자백가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사기」에 사용된 분류의 도식을 보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가 상식

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백가는 모두 사기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기는 제자백가를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라는 여섯 학파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는 제자백가에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사인 집단 하나가 슬그머니 ㉤누락되어 있다. 바로 후대에 병가(兵家)라고 불리던 사인의 무리이다. 병가를 제자백가에서 배제하는 관례는 반고의 「한서」, 「예문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다가 ㉥병가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당나라 때나 되어 서야 가능해진다. 당나라 위정의 「경적지」에는 제자백가를 유가, 도가, 법가, 명가, 묵가, 종횡가, 잡가, 농가, 소설가, 병가, 천문가, 역수, 오행가, 의방가의 14개 학파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기」와 「한서」에서 모두 병가를 제자백가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춘추 전국 시대의 육예가 문과 무로 분화되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에는 전쟁 기술에 정통한 사인들이 인문 기술에 능숙한 사인들보다 제후국의 관료로 임용되기 쉬웠다. 치열한 전쟁이 반복되면 될수록 새로운 장수와 장교, 군인들의 충원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기술과 관련해서는 병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학 집단이 존재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학 집단이 제후국의 등용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이념을 유세하는 처지였지만, 전쟁 기술에 정통한 사인들은 제후국의 부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등용된 사인들이 제후국을 융성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조나라를 융성시킨 ‘누완과 비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뛰어난 전쟁 기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결국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는 대개 인문 기술과 관련된 것들만 남게 되었다. 물론 유가, 법가, 혹은 도가에 속해 있던 사인들이 피력했던 부국강병과 천하 통일에 대한 철학적 이념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후국들이 당면한 전쟁 위기에서 이런 초월적 논의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나라 무제 이후 여러 제후국들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 속에서 문(文)을 숭상하여 유학을 정권의 이념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는 유가가 병가와 같은 길을 걸으며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자백가는 중국 역사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변모해 왔다.

\* 전거(戰車) : 전쟁할 때에 쓰는 수레.

##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제자백가 중 유가는 한 무제 이후에 그 수가 현격하게 늘어났다.
- ② 춘추 전국 시대의 공과 경대부는 사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 ③ 사인들이 배웠던 전문 기술 중 ‘예, 악, 서, 수’는 인문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
- ④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제자백가 중 유가는 위정의 「경적지」에도 등장하였다.
- ⑤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이 사인을 육성할 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제자백가의 융성을 초래하였다.

17.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자백가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 ② 제자백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제자백가의 의의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주장을 제시한 후 주장 간의 절충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을 밝힌 후 그 특징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제자백가의 유형을 분류한 뒤, 각 학파가 현대의 사상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8. 윗글을 읽은 후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훗날 춘추 전국 시대의 패자가 되었던 진나라 문공(중이)은 아버지 현공의 후계 다툼에서 밀려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무려 19년간의 망명 생활을 했다. 망명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중이가 정나라 문공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문공은 그의 상황을 알고 박대한다. 그때 문공의 신하 중 숙침이 중이를 후대할 것을 문공에게 간청한다. 왜냐하면 숙침은 중이를 따르는 세 명의 사인들이, 무령왕을 보좌하며 조나라를 융성시킨 누완과 비의에 견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① '숙침'은 '중이'를 따르는 '세 명의 사인'들이 탁월한 전쟁 기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겼겠군.
- ② '정나라 문공'이 '중이'를 박대한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전쟁 기술의 뛰어난을 우려했기 때문이겠군.
- ③ '중이'가 '현공'의 후계 다툼에서 밀린 것은 진나라에 등용된 사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이겠군.
- ④ '숙침'이 '누완과 비의'의 일을 예로 든 것은 '정나라 문공'에게 경대부와 사인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 이겠군.
- ⑤ '중이'가 19년간 망명 생활을 마치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이 끝나고 안정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19. ㉠의 상황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떠올린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노력으로 신분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②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문 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제자백가를 찾아 떠나야겠다.
- ③ 지금 상황에 현혹되지 말고 스승과 함께 우리 제자백가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 ④ 스승의 입지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들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 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으니 잠시 공부를 멈추고 이곳을 떠나 후일을 도모해야겠다.

20. ㉡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전쟁 기술에 정통한 사인들이 대거 관료로 임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자백가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에서 점차 우위를 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춘추 전국 시대와는 달리 전쟁 기술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수년간 지속되어온 전쟁으로 많은 사인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춘추 전국 시대의 전쟁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불리던
- ② ㉣ : 익혔다
- ③ ㉣ : 깎아내리는
- ④ ㉤ : 달라져
- ⑤ ㉥ : 여기던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는 기대효용 이론의 맥락에 따른다. 기대효용 이론에서 인간은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항상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기대효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기대효용 이론의 가정을 비판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은 기대효용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커너먼과 트버스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은 기대효용이 아니라 가치를 준거점으로 삼아 의사 결정을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가치보다는 예상되는 손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인간의 의사 결정 상황에서 심리적 가치와 실제적 가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로스펙트 이론이 기대효용 이론과 차별되는 점은,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와 ‘의사결정가중치함수’에서 확인된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가치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득 영역에서는 위로 볼록하여 이득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가치 변화에 대해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손실 영역에서는 오목하여 손실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가치 변화에 대해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는 S자형 곡선 모양으로 나타난다. 다만 손실 영역의 함수가 이득 영역의 함수보다 기울기가 급한 형태가 되어, 인간이 이득보다 손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과 이익 영역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위험 회피 경향을,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가치함수와 더불어 프로스펙트 이론의 또 하나의 핵심 구성요소는 **의사결정가중치함수**이다. 기대효용 이론에서는 결과의 효용과 확률을 곱하면 기대효용이 산출되는데, 이때 확률은 모든 수치의 차나 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객관적 확률로 가정한다. 즉 기대효용 이론에서 확률 0.5는 0.1보다 5배 크고, 0.2와 0.3의 차는 0.3과 0.4의 차와 같은 크기를 갖는다. 이와 같은 확률과 기대효용과의 연관성을 확률의 선형성(linear)이라 한다. 그러나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결과의 효용(가치)과 확률이 주관적 크기로 평가된 의사 결정가중치  $\pi(p)$ 가 곱해져 기대가치가 산출되는데 여기서 의사 결정가중치는 비선형성(nonlinear)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확률 0.5는 0.1의 5배 크기로 한정되지 않고, 0.2와 0.3의 차는 0.3과 0.4의 차와 같은 크기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가중치함수이다. 의사결정가중치함수는 의사 결정가중치  $\pi(p)$ 와 확률  $p$ 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pi(0)=0$ 으로 불가능한 사건은 무시되고,  $\pi(1)=1$ 이 되도록 척도가 정규화되어 있다. 둘째, 낮은 확률들의 경우에는  $\pi(p)>p$ 이 성립하지만, 모든 확률들  $0<p\leq 1$ 에 대해서는  $\pi(p)+\{\pi(1-p)\}\leq 1$ 이 성립한다. 따라서 낮은 확률들은 과대평가되고 중간과 높은 확률들은 과소평가되는 특성이 있으며 중간과 높은 확률들이 과소평가되는 특성은 보다 명백하게 나타난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준-확실성’이라 명명한다. 셋째, 모든 확률  $0<p, q, r\leq 1$ 에 대해  $\pi(pq)/\pi(p)<\pi(pqr)/\pi(pr)$ 이 성립한다. 즉 확률의 고정된 비율  $q$ 에 대해 의사 결정가중치의 비율은 확률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확률 1에 더 근접하게 된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준-비례성’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가중치함수의 특성들은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 결정에서 인간은 애매모호한 대안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간은 기대효용이 동일한 불확실한 대안보다 확실한 대안을, 심지어 기대효용이 큰 불확실한 대안보다 작지만 확실한 대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결과, 즉 확률이 1인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와 의사결정가중치함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선형적 특성들은 특정 상황에 다르게 프레이밍된 대안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선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결과의 가치를 이득과 손실로 프레이밍하는 ‘결과 프레이밍’과 결과의 가치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확실( $p=1$ )과 불확실( $0<p<1$ )로 프레이밍하는 ‘우연성 프레이밍’이 있을 때,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결과 프레이밍에 대해 의사 결정자는 이득 프레이밍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대안을, 그리고 손실 프레이밍에서는 위험 추구적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연성 프레이밍은 프로스펙트 이론의 ‘준-확실성’에 의해 의사 결정자는 불확실로 프레이밍한 대안보다 확실로 프레이밍한 대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로스펙트 이론을 가치함수 방식과 의사결정가중치함수 방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프로스펙트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하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프로스펙트 이론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치함수와 의사결정가중치함수의 절충을 통해 프로스펙트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치함수와 의사결정가중치함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설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치함수와 의사결정가중치함수를 통해 프로스펙트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에 나타나는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23.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험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기대효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 ② 인간은 손실보다는 이득을 중시하므로 기대효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③ 인간의 의사 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인간이 선택한 대안의 기대효용 또한 항상 최대는 아니다.
- ④ 인간은 손실로 인해 잃는 가치보다 이득에서 얻는 가치를 크게 평가하여 기대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⑤ 인간은 완벽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한 대안의 기대효용이 항상 최대는 아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트버스키와 커너먼은 600명이 사망할 상황에서 이들을 구출할 동일한 대안에 대해 사람들의 선택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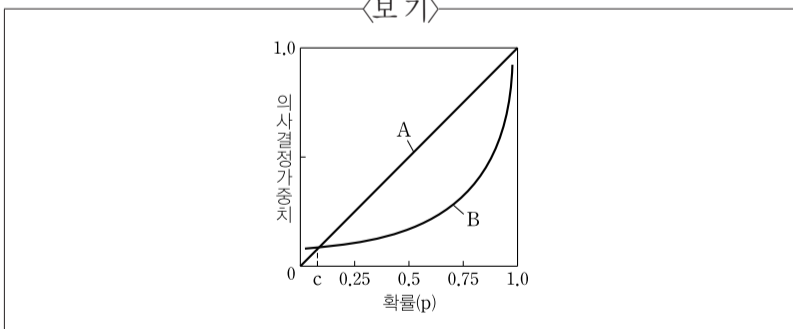
먼저 대안 A를 선택하면 200명이 확실히 살고, 대안 B를 선택하면 600명 모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3,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확률이 2/3이라고 할 때, A와 B 두 대안의 기대효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72%는 대안 A를 선택하였고 28%는 대안 B를 선택하였다.

반면 대안 C를 선택하면 400명이 확실히 사망하고, 대안 D를 선택하면 아무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1/3, 600명 모두 사망할 확률이 2/3이라고 할 때, C와 D 두 대안의 기대효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78%는 대안 D를 선택하였고 22%는 대안 C를 선택하였다.

- ① 대안 A와 C는 기대효용이 발생할 확률이 1, 대안 B와 D는 기대효용이 발생할 확률이 1이 아닌 경우이다.
- ② 사람들이 대안 A를 대안 B보다 선호한 것은, 불확실한 이득의 가치보다 확실한 이득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군.
- ③ 사람들이 대안 D를 대안 C보다 선호한 것은, 손실 프레이밍에서 위험 추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④ 대안 A에 대한 선호는 이득 영역에서 사람들이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회피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군.
- ⑤ 대안 A~D에 대한 각각의 선호는 인간의 의사 결정에서 최대의 기대효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군.

25. <보기>는 의사결정가중치함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A는 모든 수치의 차나 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대효용 이론의 선형성을 나타낸다.
- ② A는  $p=0.75$ 인 사건보다  $p=0.25$ 인 사건이 보다 강조되는 준-비례성을 나타낸다.
- ③ B는  $p=0$ 인 사건이 무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 ④ B는  $p < c$ 인 사건은 과대평가되고,  $p > c$ 인 사건은 과소평가하는 준-확실성을 나타낸다.
- ⑤ B는  $p=0.25$ ,  $p=0.5$ ,  $p=0.75$ 인 각 사건 결과의 효용과 확률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결과 프레이밍 방식을 적용한 실험에서, 신용카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를 2개의 피험자 그룹에 각각 제시한 뒤, 신용카드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B. 결과 프레이밍 방식을 적용한 실험에서, 수자원 보호 활동으로 초래될 불편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와 수자원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를 2개의 피험자 그룹에 각각 제시하였을 때,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에 비해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수자원 보호 활동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A에서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 중에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치보다 신용카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 ② A에서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 중에 신용카드 사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의 가치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손실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 ③ B에서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 중에 수자원 보호 활동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자원 보호로 초래될 불편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았을 것이다.
- ④ B에서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 중에 수자원 보호 활동에 동의한 사람들은 수자원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손실의 가치를 수자원 보호 활동이 초래할 불편의 가치보다 작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 ⑤ B에서 이득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에 비해 수자원 보호 활동으로 초래될 불편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A]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B]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가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C]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취 주고 있지 않느냐.

〈송수권, '까치밥'〉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다)

길은 우리의 삶을 부풀게 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부름을 따라가는 나의 발길이 생명력으로 가벼워진다. 황혼에 물들어 가는 한 마을의 논길, 버스가 오며가며 먼지를 피우고 지나가는 신작로, 산언덕을 넘어 내려오는 오솔길은 경우에 따라 기다림을 이야기한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친정을 찾아오는 딸을,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를 기다림에 부풀게 하는 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길은 희망을 따라 떠나라 부르고, 그리움을 간직한 채 돌아오라고 말한다.

희망과 그리움, 떠남과 돌아옴의 길은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길은 희망이라는 미래와 그리움이라는 과거, 미지의 사람과 정든 사람들, 사물과 인간간의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관계에서 미래와 과거, 나와 남, 정착과 개척, 휴식과 움직임,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의 열매가 결실(結實)되어 간다.

길은 과거에 고착(固着)함을 부정하는 동시에, 미래에만 들떠 있음을 경고한다. 길을 떠나 나는 이웃과 만나고, 길을 따라온 이웃이 나를 만난다. 길 끝에 휴식할 곳이 있지만, 다시 길을 찾아 어디론가 움직여야 한다. 길은 인간이 자연 현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선을 전달하는 크나큰 표지이지만, 그 표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나타낸다.

……〈중략〉……

산천을 누비어 꿈을 꾸는 듯한 한국 시골들을 이어 놓은 한국의 옛 길들에서 우리는 극히 인간적인 것을 느낀다. 철도, 아스팔트가 깔리고 플라타너스에 그늘진 한국의 신작로도 아직 인간적인 호흡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쁘고 부산한 고속 도로, 큰 도시의 실꾸러미처럼 엉킨 길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박자로 맞출 수 없는 비인간화된 삶의 형태를 체험한다. 그렇다면 인간적 체온이 풍기는 길을 잃어 갈 때, 우리는 인간을 잃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큰 도시의 네거리에서 북작거리다가도 잠시나마 버드나무 그늘진 시골 논길을, 냇물이 돌조각 사이로 흐르는 개천 길을 걸어 보고 싶어지게 된다. 명상적이면서도 청청(淸淸)한 노랫가락 같은 한국의 길에서, 우리는 논과 밭, 산과 개천, 구름과 나무,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과의 친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체험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 한 시대의 생활 양식의 변천과 더불어 그 사회, 그 시대의 길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옛날 길들에 마음이 끌리고 유혹을 느낀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낭만적 향수나 진보에 대한 거부심(拒否心)에 기인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 남들과의 조화로운 만남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박이문, '길'〉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와 현대 문명을 대조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의미 탐색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희망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밝은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하며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명령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과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명령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C]에서는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을 연결 지으며 명령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A]의 자연의 본성과 [B]의 인간 세계를 대비하여 명령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C] 모두 명령의 대상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은 자연의 아름다운 여백을, (다)의 '구름과 나무', '하늘과 땅'은 자연이 지닌 여유로움을 환기한다.
- ② (가)의 '이 세상 어느 물굽이'는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인생의 굴곡을, (다)의 '돌조각 사이로 흐르는' '냇물'은 험난한 세상사를 상징한다.
- ③ (가)의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다)의 '그늘'을 드리우는 '버드나무'는 위로와 안락함을 주는 존재를 가리킨다.
- ④ (가)의 '사랑방 말쿠지'에 걸어 놓은 '짚신 몇 죽'은 인정과 배려를, (다)의 '한국 시골들을 이어 놓은 한국의 옛 길'은 인간적 체온을 느끼게 한다.
- ⑤ (가)의 '아버지가 넘어가신 새벽 두만강 국경'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다)의 '바쁘고 부산한 고속도로'는 여유로운 삶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을 의미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나)의 화자는 다양한 소재와 효과적인 표현법을 활용하여 떠나기 전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추억하고 있다.

- ① '있지 아니하고'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고향을 상실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초가지붕', '토란 잎', '짚벼늘' 등의 토속적인 소재를 통해 과거 고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③ '싸락눈'과 '수레바퀴 자국'을 통해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초가을', '여름날' 등의 계절적 배경을 통해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와 달라져 버린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노오란', '후두둑', '쿵쿵', '파르라한'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과거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31. <보기>는 '모듬 활동'을 하면서 (나)를 학습하는 상황이다.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필은 글쓰기가 경험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나)에는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 제시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냈는지를 정리해보자.

학생 2 : 난 수필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관념을 이끌어낸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 (나)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

학생 3 : 더 나아가서 글쓰이의 인생관과 우리의 인생관을 견주어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비판적 태도로 수필을 읽고, 작품에 드러나는 긍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생 4 : 마지막으로 글쓰이의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법도 주목해서 감상해 보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나)에 대한 감상을 말해 보자.

- ① 학생 1 : '옛날 길'에 끌리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남고자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가 느껴져.
- ② 학생 1 : 글쓰이는 '마을의 논길', '신작로', '오솔길' 등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경험을 했거나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
- ③ 학생 2 : '시골 논길', '개천 길'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마음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이끌어내고 있어.
- ④ 학생 3 : '길'이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연과 점점 멀어져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보여.
- ⑤ 학생 4 : '길'이 '부르고' '말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에서 '길'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글쓰이의 개성이 느껴져.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산(山) 점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달\*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알으시리이다  
 님이라도 님은 한데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말히 마리신저\*  
 살웃븐저\* 아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

<정서, '정과정'>

- \* 아니시며 거츠르신달 :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 \* 말히 마리신저 : 못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 \* 살웃븐저 : 슬프구나.

(나)

늘그막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건마는  
 평생 품은 뜻 이루고야 말라 여겨  
 병자년 봄에 춘복을 새로 입고  
 죽장 망혜로 노계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 강산이 입자 없이 버려 있네.  
 예로부터 은사(隱士), 처사(處士) 많지도 있건마는  
 천지가 감춤했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오래도록 주저하다 석양이 거인 적에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현무 주작과 좌우 용호도 그린 듯이 갖췄구나.  
 산줄기 끝난 곳 바람 가린 남향에  
 푸른 덩굴 헤치고 몇 칸의 작은 집을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오류변에 지어 두고,  
 가던 용이 머무는 듯 천길 절벽이  
 강두에 들렸거늘 초가집 한 두 칸을  
 구름 낀 긴 솔 아래 바위 위에 지어내니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아마도 기이하다.  
 봉우리는 수려하여 부춘산(富春山)이 되었고  
 물은 굽이 흘러 칠리탄(七里灘)이 되었거든  
 십리의 모래밭은 삼월의 눈이 되었도다.  
 이 호산 형승은 견줄 데 전혀 없네.  
 소부 허유도 아니어서 어찌 절의(節義) 알까마는  
 다행히도 우연히 이 명승지 입자 되어  
 청산유수와 명월청풍도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러운 갈매기와 수많은 사슴도 값없이 절로절로,  
 저익\* 갈던 묵은 밭과 엄자릉\*의 조대도 값없이 절로절로  
 산중 온갖 것들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롱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괴이하다.  
 입산 당년에 은군자 되었는가.

.....〈중략〉.....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도화는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희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聖恩)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일생에 품은 뜻을 비웁니다. 하느님이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三代日月)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발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께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江山風月)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박인로, '노계가'〉

\* 저익 : 장저와 길익. 중국 춘추시대 때 나란히 밭을 갈며 숨어 산 은사들.  
 \* 엄자릉 : 중국 후한 때 부춘산에 몸을 숨기고 칠리탄에서 낚시하며 일생을 마친 인물.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배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대상을 호명하며 원하는 바를 호소하고 있다.
- ④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계 깊은 골'은 화자가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군.
- ② '봄'과 '삼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호산 형승'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군.
- ③ '맑은 술'과 '도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군.
- ④ '북극성'을 보고 흘리는 '남모르는 눈물'을 통해 '임금 걱정'의 심정을 표상하는군.
- ⑤ '자롱이 돌', '저익이 셋'이라는 표현에 '은군자'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묻어나는군.

34. (가)와 <보기>의 [A]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사》〈악지〉권 71에는 (가)의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과정'을 지은 정서는 외척(外戚)과 혼인을 맺어 고려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하면서 정서를 동래로 귀양 보냈는데, 의종은 "오늘 가게 된 것은 조정의 의논에 밀려서이다. 머지않아 소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소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극히 구슬프다. 고려의 문신 이제현이 한시의 형식으로 시를 지어 이 노래의 뜻을 풀이하였다.

	[A] 매일같이 님 생각에 옷깃이 젖어 흥사 봄산에 자규새 같네 옹고 그릇됨을 묻지를 마오 응당 새벽달과 별만은 알리라	憶君無日不霑衣 政似春山蜀子規 爲是爲非人莫問 只應殘月曉星知
--	---	--

- ① (가)의 '점동새'와 [A]의 '자규새'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 되는 자연물이다.
- ② (가)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A]에서는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님'에 대한 애정을 직접적으로, [A]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잔월효성에', [A]의 화자는 '새벽달과 별'에 기대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⑤ (가)와 [A] 모두에서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울 하늘에서 보이는 북극성은 부산에서보다 2.5도 가량 높게 떠 있다. 용골자리의 가장 밝은 별 카노푸스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성이라 하는데, 이 별을 보기 위해서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한다. 위 두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공처럼 둥근 지구 표면에서 위도가 다른 곳에 있으면 같은 별이라도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구는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 운동을 하므로 우리는 별의 일주 운동을 보게 된다. 천체들이 모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며 천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일주 운동이다. 별의 일주 운동은 위도에 따라 다른데, 중위도 지방에서는 45도 정도의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일주 운동이 일어나며, 극지방에서는 수평으로, 그리고 적도 지방에서는 수직으로 일주 운동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별들이 천구에 고정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해 해와 달, 그리고 행성들은 고정된 별들 사이를 바쁘게 움직인다. 달이 별 바로 앞을 지나며 별을 가리는 현상을 '성식(星蝕)'이라고 한다. 천구상에는 별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별들이 깔려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달은 항상 성식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달이 워낙 밝아서 달 바로 옆에 있는 어두운 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별의 밝기가 4등급대 이상이면 성식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다.

2001년 3월 6일 새벽 쌍둥이자리 델타별이 달에 가려졌는데 이 성식은 보통의 경우에 비해 다소 특별했다. 2001년 1월 10일 개기 월식의 전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달 바로 옆에서 빛나던 밝은 별 하나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별이 쌍둥이자리 델타별이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그 월식을 관측한 사람이라면 이 별이 월식 도중 달에 가려지는 현상도 보았을 것이다. 쌍둥이자리 델타별이 개기 월식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달에 가려지는 성식이 일어난 것이다. 이 별은 밝기가 3.5등급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성식을 관측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이때 달은 반달을 조금 넘어선 상태였다.

지구는 자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을 한다. 따라서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의 겉보기 운동\*이 나타난다. 지구는 1년 걸려서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므로 하루에 약 1도를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서쪽 하늘에서 전날 자정에 남중\*했던 별은 다음 날 자정에 남중하지 않고 반드시 서쪽으로 약 1도씩 치우쳐 있게 된다. 별들이 매일 서쪽으로 1도씩 치우쳐 간다는 말은 별들이 매일 1도만큼 동쪽에서 일찍 떠오른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별이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오'란 태양이 하루 중 가장 높이 솟아 있는 시각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자정'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관측자의 반대편에 있는 한밤중을 의미한다.

\* 천구(天球) :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의 구면(球面)  
 \* 겉보기 운동 : 천체가 포물선의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 현상.  
 \* 남중(南中) : 천체가 남쪽 하늘에 가장 높이 걸리는 현상.

35.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의 운동에 의한 개기 월식
- ②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의 종류
- ③ 지구의 운동과 별의 일주 운동
- ④ 지구의 운동과 달의 상관 관계
- ⑤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이동 과정

36.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대부분의 별은 1년에 한 번씩 천구를 돌고 있다.
- ② 하늘의 겉보기 운동은 지구의 공전 운동과 관계가 있다.
- ③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 ④ 같은 별이라도 관측자의 위도가 바뀌면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
- ⑤ 극지방과 적도 지방은 별의 일주 운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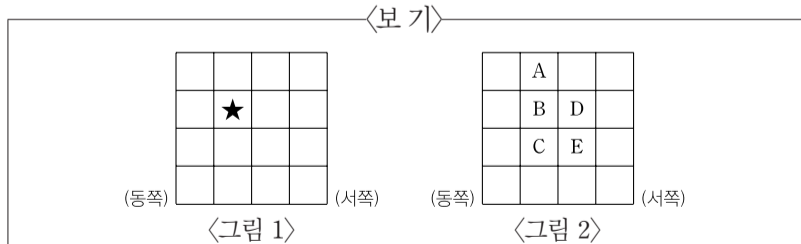
37. <보기>는 [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기>와 [가]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새벽 1시 21분 쌍둥이자리 델타별은 달의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 모습이 사라졌으며, 새벽 2시 16분에는 반대편 방향인 달의 밝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달의 중앙 부근을 지나다가 가려지는 시간은 꽤 길었다. 성식이 끝나고 델타별은 동일한 밝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 ① 개기 월식과 성식은 번갈아 일어나겠군.
- ② 3월 6일에 보름달이었어도 성식의 진행 시간은 같았겠군.
- ③ 성식이 진행되는 동안 델타별은 점점 밝아지겠군.
- ④ 델타별은 달에 의한 성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군.
- ⑤ 성식을 관측한 사람은 모두 개기 월식도 동시에 관측했겠군.

38. <보기>는 우리나라에서 별의 겉보기 운동을 탐구하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생님이 한달 전 12시에 창살이 있는 창문을 통해 남서쪽 하늘에 별이 <그림 1>의 위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12시 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별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림 2>에서 찾아보세요.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영금 영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꾀꾀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둑질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 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렸다.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연을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방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오랜 후 어느 날 약방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였다.

또 여러 종실의 손님들과 공경 문하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의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방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끝이, 옥비취, 의복, 가재 도구 및 가옥·밭과 집,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회를 잘하고 철괴무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흘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령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 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 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하였다.

〈박지원, ‘광문자전’〉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두 인물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삽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광문자전〉은 물질에 대한 집착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지 ‘광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광문은 의리를 중시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인물로,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인정받고 추앙받는다. 또한 광문은 남녀평등 사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며, 여러 상황에서 익살스럽고 기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 ① 버려진 시체를 묻어주는 장면에서 의리를 중시하는 광문의 사람됨을 알 수 있군.
- ② 병든 아이를 돌보는 광문의 모습에서 마음씨가 따뜻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서 익살스럽고 기지 넘치는 광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광문이 빗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는 것에서 광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알 수 있군.
- ⑤ 결혼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누구에도 구속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광문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인공인 광문의 신분과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② ㉡ :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광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 :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광문을 의심하는 약방 부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④ ㉣ : 광문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광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42. 윗글의 집주인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군.
- ② 신분에 의한 차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군.
- ③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사람이군.
- ④ 사회적 부조리함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군.
- ⑤ 인물의 의로운 면모를 알아본 사람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 주적대는 풀이 어쭙지 않고 밍살스러웠다. 그는 잠깐 입을 닫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덕덕덕 굽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중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까지 가는지요?”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요.”

[A] “그런지요.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쳐 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지요?”

그는 또 물었다.

“육칠 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도 없었다.

㉠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길인데 우리 같은 막별이군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지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지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울울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뻗어올라가며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끈 듯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 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쎬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꽤쳤다.

“글쎬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 “흞,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너털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려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료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이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범발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망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보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까장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울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했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뭇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꼭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廢洞)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준비하게 남았드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만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풀풀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푹푹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푹푹히 본 듯 싶었다. <현진건, ‘고향’>

\* 기진야도 : 노동자 합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②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 ③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사회적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개인의 삶이 드러나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잃은 유랑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삶이 어려워져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비참한 삶에 대한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삶에 대한 비애와 한을 드러내고 있다.

45. [A]를 <보기>와 같이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A]와 <보기>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3점]

—<보기>—

# 100 기차 안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린다. ‘나’는 여전히 ‘그’가 못마땅하다. (C.U) 얼굴 표정에서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의 주적대는 꼴이 어쩹지 않고 밍살스럽다. ‘그’는 잠깐 입을 닫고 무료한 듯이 앉아 있다. (E) 간간이 기차의 기적 소리만 들린다. ‘그’는 머리를 굽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 : 어디까지 가는기요?  
 나 : 서울까지 가요.  
 그 : 그런기요.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텅텅히 입을 닫는다. ‘나’는 서울까지 가는 과정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여행하듯 가고 싶다. 그런데 ‘그’는 틈만 나면 친한 척 말을 걸고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나’는 ‘그’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E) 그때 기차의 기적 소리가 몇 번 이어진다.

그 :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나 : 육칠 년이나 됩니다.

(C.U) 카메라가 ‘나’의 얼굴을 확대하자 ‘나’의 표정에서 ‘그’를 성가시게 여기는 표정이 역력히 묻어난다. 그렇다고 ‘나’는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꾸를 안 할 수도 없다.

- ㄱ. <보기>와 달리 [A]에서는 ‘나’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를 밝히고 있군.
- ㄴ.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중간 중간에 음향 효과를 삽입하여 공간적 배경을 환기하고 있군.
- ㄷ. [A]에서는 ‘나’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보기>에서는 ‘그’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군.
- ㄹ. [A]와 달리 <보기>에서는 ‘나’의 얼굴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나’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